

#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정준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096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12. 30.

발 의 자 : 정준호 · 한준호 · 김기표  
박희승 · 전진숙 · 신정훈  
김영환 · 문대림 · 이개호  
김남근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을 운송사업, 운송가맹사업, 운송중개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음. 이 중 운송중개사업은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의 여객운송 수요를 택시 등 운송사업자에게 주선하는 서비스로 일반택시뿐만 아니라 운송가맹사업자 소속 택시도 참여함.

그런데 최근 국내 시장점유율 1위의 운송중개사업자가 사실상 운송가맹사업을 겸영하면서 해당 운송가맹사업자 소속 택시에 이른바 “콜 몰아주기”, “콜 차단” 등 불공정 행위를 함에 따라 운송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기반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. 또한 3년 연속 국정감사에서 ‘택시호출서비스업 독과점 문제 및 경쟁 촉진을 위한 해결’이 필요하다고 지적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어 입법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.

이에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시장지배적지

위를 가진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플랫폼운송가맹사업자를 차별하거나 자기 또는 계열회사를 우선하여 중개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,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, 운송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49조의20 신설 등).

##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장의2에 제49조의2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9조의20(불공정한 중개행위의 금지)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진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는 공정한 여객운송 중개 질서를 해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부당하게 운송사업자나 플랫폼가맹사업자를 차별하여 여객운송을 중개하는 행위
2. 중개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를 우선하여 여객운송을 중개하는 행위
3. 그 밖에 공정한 중개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

제94조제1항에 제3호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3의7. 제49조의20을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49조의20(불공정한 중개행위의 금지)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진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는 공정한 여객운송중개 질서를 해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부당하게 운송사업자나 플랫폼가맹사업자를 차별하여 여객운송을 중개하는 행위</li> <li>2. 중개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를 우선하여 여객운송을 중개하는 행위</li> <li>3. 그 밖에 공정한 중개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</li> </ol>
<p>제94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p> <p>1. ~ 3의6. (생략)</p>	<p>제94조(과태료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의6. (현행과 같음)</p>

<u>&lt;신 설&gt;</u>	<u>3의7. 제49조의20을 위반하여</u>
	<u>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</u>
	<u>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</u>
4.·5. (생 략)	4.·5. (현행과 같음)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